

- 주요 뉴스: 미국 백악관,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미국 경제의 연착륙 전망
 - 영국·스페인·프랑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입국객 제한조치 도입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군사적 협력 강화 제안
 - 중국 시진핑 주석, 코로나19 통제 전략이 최적화되었다고 자평
 - 국제금융시장: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아 거래량이 급감하며 제한적인 흐름
 - 주가 하락[-0.3%], 달러화 약세[-0.3%], 금리 상승[+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기술주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 마감(연간 -20%)
유로 Stoxx600지수는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연간 -12.76%)
 - 환율: 달러화지수는 한산한 거래량 속 글로벌 성장둔화 우려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가는 각각 0.4%, 1.4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부진한 거래 속 통화긴축 지속 우려로 상승 마감
독일은 1월 중 국채 매도 계획으로 가격이 하락하며 금리는 13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260.84원) 현물환 시장 휴장, 한국 CDS 상승

		12/30일	12/29일	전일대비			12/30일	12/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39.5	3,849.3	-0.25%	국채 금리 10y	미국	3.87	3.81	6bp
	유럽	424.89	430.35	-1.27%		독일	2.57	2.44	13bp
	중국	3,089.3	3,073.7	0.51%		영국	3.67	3.66	1bp
	일본	26,095	26,094	0.00%	CDS 5y	한국	55	54	1bp
	한국	휴장	2,236.4	-		중국	75	74	1bp
환율	달러지수	103.49	103.84	-0.33%	위험 지표	EMBI+	-	375	-
	유로화	1.0704	1.0661	0.40%		VIX	21.63	21.44	0.89%
	엔화	131.10	133.03	1.45%		WTI유	80.43	78.4	2.59%
	위안화	6.8986	6.9643	0.94%	원자재	구리	382.1	382.4	-0.09%
	원화	휴장	1,264.5	-		금	1,824.1	1,814.9	0.5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백악관, 대규모 투자에 힘입어 내년 미국 경제의 연착륙 전망

- 헤더 부시 백악관 최고 경제자문위원,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견조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면서 '23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고 평가
- 이러한 낙관적 평가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연준 위원들은 내년 GDP가 0.5%에 그치며 역성장을 간신히 피할 것으로 예상. 일부는 실업률이 금년 11월 3.7%에서 내년 말 4.6%로 악화 예상
- 그러나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첫 2년 동안 의회에서 통과된 일련의 법률들이 인프라, 청정에너지, 반도체 제조 등을 위한 투자 자금흐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수는 최근 3개월 동안 평균 27만 2천명 증가하며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 헤더 부시 고문은 미국 노동시장을 뒷받침할 세가지 법안으로 '21년 11월 통과된 초당파 사회기반시설법(인프라법), 반도체 칩과 과학법, '22년 여름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거론
- 미국의 소비자물가(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6월 최고치인 9.1%에서 11월 7.1%로 둔화되었으며, 백악관은 2%p 하락은 현저한 성과라고 평가.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금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1로 한 달 전(\$3.6)보다 큰 폭 낮아졌으며, 러우 전쟁 이전인 1년 전(\$3.2)보다 더 낮은 수치라고 발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영국·스페인·프랑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입국객 제한조치 도입

- 최근 중국의 해외여행 규제 완화로 새로운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 중국에서의 입국객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 미국, 일본, 인도, 이탈리아에 이어 12.30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

■ 미국 모기지 금리, 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

-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12.29일 6.42%로 전주(6.27%) 대비 상승했으며, 이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고금리로 전년동기대비 이자가 두 배 상승하면서 매수자 부재로 주택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고 있으나 연준의 금리인상은 지속될 전망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 감행. 미국, 경량 탱크급 장갑차 지원 검토

- 러시아군은 12.29일 오전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동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남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최소 100여발 이상의 미사일 공습을 단행. 이번 공격으로 수도 키이우에서 최소 3명이 부상당하고 주요 도시의 전력망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
- 미국 정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미사일을 탐지해 격추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량 탱크급 무기인 브래들리 장갑차 지원 방안을 검토 중. 이 경우 지상전 전투 능력의 상당한 향상 예상

■ 러시아 푸틴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군사적 협력 강화 제안

- 푸틴 대통령, 12.30일 국영 TV에 방송된 러시아-중국 화상 정상회담에서 내년 봄 시진핑 주석을 모스크바로 공식 초청하면서 러-우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는 발언을 지속. 시 주석도 이에 화답

■ 러시아, EU의 제재를 앞두고 1월 중 디젤(diesel) 수출이 급증할 예정

- 내년 2.5일 러시아산 석유제품 금수조치를 앞두고 1월 중 러시아산 해상 디젤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발트해 및 흑해 항구로부터의 연료 선적량은 1월 268만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2월 계획된 물량 대비 8% 증가한 규모로 최소 '2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Bloomberg)

■ 중국 시진핑 주석, 코로나19 통제 전략이 최적화되었다고 자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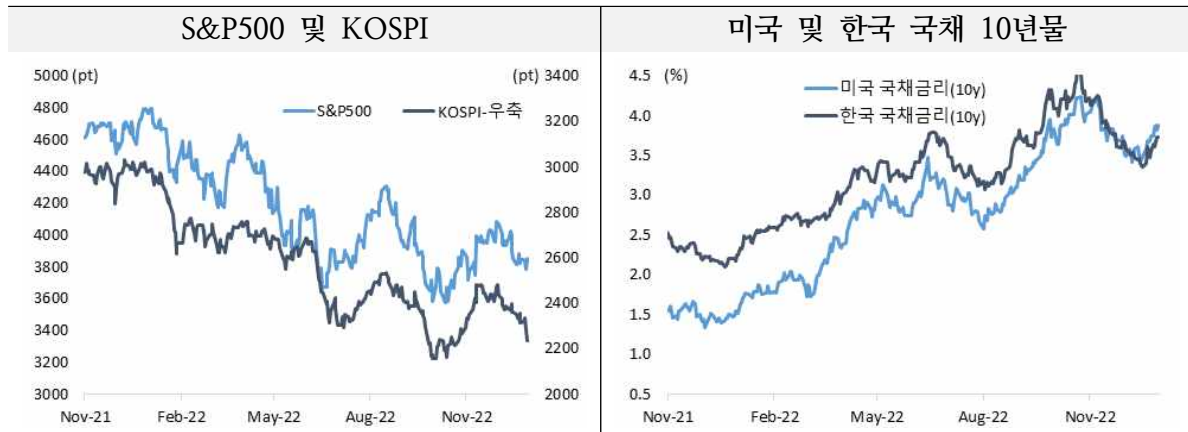
- 시 주석은 올해 성과를 열거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코로나19 전략을 구사한 것을 높이 평가.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12.7일 이후로 연설에서 코비드 제로(Covid Zero) 대신 '코비드 통제 전략(Covid control strategy)'이라는 문구를 사용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 및 예정 이벤트(12/31 현지시각 기준)

- 미국 MNI 12월 시카고 PMI: 44.9, 11월(37.2), 예상치(40.0)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제조업(전월 48.0) 및 비제조업 PMI(전월 46.7)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E-mail kimhj@kcif.or.kr